



공동체 소식



## 연중 제13주일

아버지, 가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의 신비로,  
온갖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가 가난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전하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가정

☞ 7월 기도지향 가정 : 정연숙 막달레나 가정  
정한조, 정지현 막달레나 가정

예수성심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께 우리 삶의 고뇌를 의탁합니다.

7월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7/3(금) 오전 10시(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성모성심미사 : 7/4(토) 오전 10시(묵주기도와 미사)
- ☞ 성모성심미사는 ‘독립기념일’ 교통 관계로 회관에서 봉헌합니다.

영명축일

- 일시 : 7/5(일) 중심미사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사도 토마스)을 함께 기뻐합니다. 아울러 서품 1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착한 목자’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평화신문 홍보

- 일시 : 7/19(일) 중심미사
- 담당 : 김영춘 베드로 신부님(평화신문 사장)

기타

- 2박 3일 동안 피정 지도를 해 주신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님(오스틴 본당, TX)과 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 피정을 준비해 주신 전례부와 평협에 감사드리며, 피정에 참여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도 성령의 크신 은총 기도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8	215	168/166	205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예찬 미카엘	정수한 베드로 김준영 요셉
차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민서 임마누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애찬 봉사자

금주	정지현, 한춘희, 안복선
차주	다 함께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6/21	78명	453불	880불
차호섭, 주영길, 박동희, 박희영(총 4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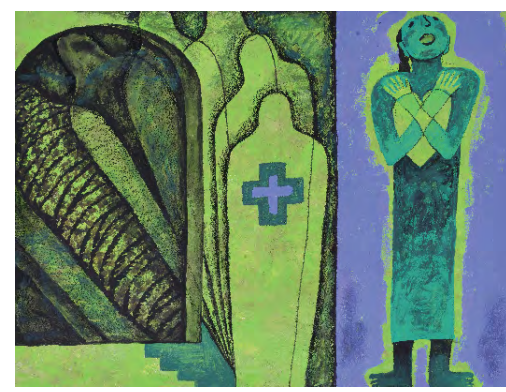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 오늘도 이 미사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감사드리며, 또한 성 베드로 사도 축일을 앞두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그림 묵상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시자, 아이는 곧바로 일어나 걸어 다닙니다. 죽은 이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지나간 삶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신비의 삶을 살아가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정미연 소화대례사

**제 1 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13-15; 2,23-24  
<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



**화 답 송 :**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 이 다 -  
○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원수들이 저를 못지 못하게 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높이기리려 하나이다 주님 제 영혼을 명부에서 건져주시고  
구령으로 들지 않게 되살려 주셨나이다. ◎

○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그 성도들아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드려라.  
그 노여우심은 잠시 뿐이나 그 어지심은 한평생가나니  
울음이 저녁에 깃들어도 새벽이면 즐거움이 있도다. ◎

○ 주님 들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몸을 돕는 분이 주님 되시옵소서.  
이 내 슬픈 울음을 춤으로 바꾸소서 주 저의 하느님이며,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8,7.9.13-15  
<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가난한 형제들의 궁핍을 채워 줍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21-43 <또는 5,21-24.35-43>  
<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 “구원의 간절함”



2014년 여름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미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교황님의 한국 방문과 시복식은 눈에 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때문입니다. 단지 교황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을 수 있었던, 바쁜 일정 중에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모습은 개인적으로 여전히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두 명의 인물을 통해 보여지는 ‘간절함’입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 달라고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러던 중에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기적 이야기를 떠나서 이 두 인물이 보여주는 간절함은 마르코 복음이 전해주고 싶은 숨겨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동기가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는 정의롭고 선하신 하느님과 그렇지 못한 세상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에서 가끔은 죽음의 모습을,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분히 “왜?”라는 질문을 던질만 합니다.

선한 세상에 왜 악이 있는지, 하느님의 정의가 있지만 왜 우리는 불의를 경험하는지, 생명을 위해 만드신 우리 안에 왜 죽음의 모습들이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왜?”라는 질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을 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하느님의 정의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하느님의 뜻.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뜻이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하다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실현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있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부터 실천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하느님께서 오는 것이기보다는 우리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서로 남을 탓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하느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 간절하게 청한다면 그것을 하느님께서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항상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을 간곡히 청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 3 편 자기 성화

#### 제 12장 믿음으로써 집안을 구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히브 11,6-7).

#### 【주석】

**믿어야 합니다** : 구원을 위한 믿음의 보편적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주석 성경, 신약, 880).

**노아** : 노아는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첫 번째 본보기가 된다. 노아 이야기는 창세 6,5-10,32에 나온다. 믿음으로 지어진 “방주”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방도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죄의 표징이 된다(상동).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 1베드 3,20에서는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 【설명】

노아는 믿음으로 바닷가가 아닌 육지에서 방주를 만들었다. 하느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었을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히브 11,1). 믿음은 미래를, 보이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적 신념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 【교회의 가르침】

▶ 신앙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신앙 안에서 살고, 성장하고 마지막까지 항구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키워야 하며, 주님께 신앙을 키워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 신앙은 “사랑으로 행동”(갈라 5,6)하고, 희망으로 지탱되며, 교회의 신앙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2항).

#### 【어록】

▶ 신자들은 거의 모두 다 외교인들이 경작할 수 없는 험악한 산 속에서 외교인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거의 다 교리에도 밝고 천주교 법규도 열심히 잘 지키고 삽니다. 그러나 평야 지대인 고향에서 친척들과 외교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신자들은 대체로 교리에 무식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신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과 세속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산 속으로 들어가 담배와 조를 심으며 살아갑니다(최양업 신부의 일곱 번째 편지, 1850년 10월 1일).

▶ 신자들은 성물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불 같습니다. 상분이나 고상이나 성패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성물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꼭 필요한 전 재산을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선뜻 다 내놓습니다(최양업 신부의 일곱 번째 편지, 1850년 10월 1일).